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최 정 희¹⁾

신 나 리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변화가 유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참여한 유아 1,325명의 어머니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아기 동안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은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가 1세 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변화율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은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로써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주요어 : 부정적 정서성,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기질, 문제행동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로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binah2009@cbnu.ac.kr)

I. 서 론

유아기는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유아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점차 발달과업을 달성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항상 성공적일 수 없으므로, 유아는 본격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 시기 동안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현율이 높은 편인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3-7% 수준이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지만 발달과정 상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 또한 10-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들이 가정과 부모를 벗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때인, 유아기 초기에 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 반항, 과잉활동성 및 부주의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가 처음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즉각적으로 제재와 비난,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아의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지현, 오경자, 2011).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기에 발현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중재가능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Lober, Del Vecchio, & Slep, 2015). 무엇보다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많은 특성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한인숙, 양혜정, 2015; Wake, Nicholson, Hardy, & Smith, 2007).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Abidin, 1992). 특히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김연 등, 2006; Crnic, Gaze, & Hoffman, 2005; Mackler, et al., 2015; Rubin, Burgess, Dwyer, & Hastings, 2003).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유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특성은 온정적인 양육행동이다(박미진, 강지현, 2012; 이찬숙, 현은자, 2008; 최정은, 이소연, 2017).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응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연 등, 2006; 송하나, 설희정, 2015; 최연희, 2001; 하영희, 2003; 한지현, 이진숙, 2016; Gilliom & Shaw, 2004; Halverson & Deal, 2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이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따뜻하게 양육을 하는 경우 자녀는 가정 이외의 맥락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며,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행동양식을 발달시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부적응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된다(류관열, 2014; 최정은, 이소연, 2017).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함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강지현, 2009; 김연 등, 2006; 윤지원, 도현심, 2018; Mackler et al., 2015; Rubin, 2006).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안정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빈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이들의 자녀는 심리적·행동적으로 적절한 모델과 토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류관열, 2014; 윤지원, 도현심, 2018; Hollenstein, Granic, Stoolmiller, & Snyder, 2004). 따라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 예방과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의미 있는 환경적 특성이라고 하겠다.

한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수준의 변인으로서는 개별 영아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이 있다. 기질적으로 각 개인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자기 조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서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질의 주요 차원 중 하나인 정서성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성은 자극에 대해 부정적 기분, 짜증, 높은 수준의 부정적 반응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 때문에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고,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하기 쉽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송진숙, 2003; 신보영, 1999; 홍계옥, 2001;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Stifter & Dollar, 2016). 특히 정서성은 다양한 기질 특성 중 영아기부터 두드러지며, 개인의 기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에 해당한다(Rothbart & Bates, 1998).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관심을 두고 고려하여야 할 기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영아의 기질 특성 중 부정적인 정서성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왔던 이들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영아기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련성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박미진, 강지현, 2012; 송진숙, 2003; 이수진, 오경자, 2012; 이찬숙, 현은자, 2008; 최항준, 2017). 더욱이 영아기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독립적으로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강지현, 2009; 강지현 오경자, 2011; 김수정, 광금주, 2007; 이찬숙, 김경윤, 2008), 생애 초기부터 서로 상호작용하여 외현화 된 문제행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유아기에 이르러 유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정, 정익중, 2015; Bradley & Corwyn, 2008).

국내에서도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아기의 세 시점 혹은 유아기 세 시점을 다루며, 같은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강지현, 오경자, 2010; 김수정, 박금주, 2007; 김수정, 정익중, 2016; 김연수, 박금주, 2016).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검증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기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연수, 박금주, 2016). 그리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영아기와 유아기의 이해가 다소 부족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동안 영아가 기질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정서성, 양육자인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유아기까지 확장시켜, 두 예측변인 간의 교류적인 속성과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국 수준의 신생아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영아기의 부정적인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들 변인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주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이 시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어떠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후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의 연구문제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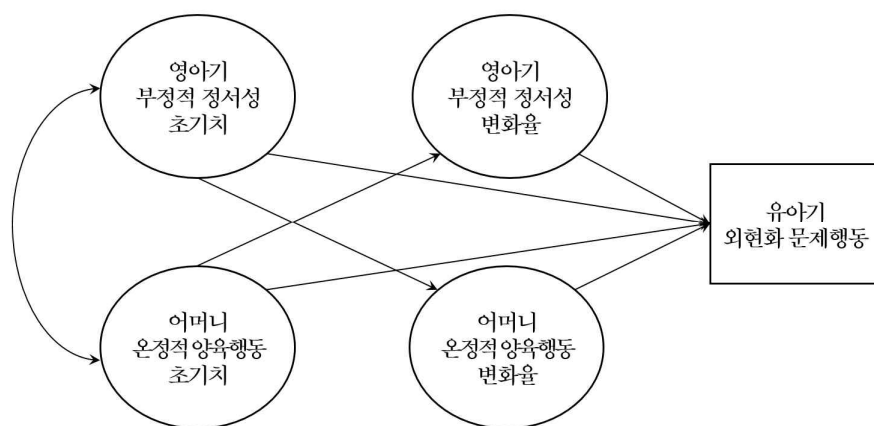


그림 1.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잠재성장 연구모형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이는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일반조사 자료 중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4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연구대상은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서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2차, 3차, 4차 및 5차년도에 조사 가구 수는 각각 1,904가구, 1,802가구, 1,754가구, 1,703가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4년에 걸쳐 분석이 되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1,325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로, 초기 구축된 패널의 61.6%에 해당하였다.

5차 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평균 월령은 52.0개월로, 남아 689명(52.0%), 여아 636명(48.0%)으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둘째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 외동, 셋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다둥이 가정의 유아가 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 1,325$)

특성			<i>n</i> (%) 또는 <i>M</i> (<i>SD</i>)
유아	월령 (개월)		52.0(1.1)
	성별	남아	689(52.0)
		여아	636(48.0)
	출생 순위	외동	265(20.0)
		첫째	347(26.2)
		둘째	564(42.6)
		셋째 이상	149(11.2)
	재원 기관	어린이집	821(62.0)
		유치원	443(33.5)
		기타	61(4.5)
부모	부 연령 (세)		37.26(4.0)
	모 연령 (세)		34.79(3.8)
	모 학력	고졸 이하	384(29.0)
		전문대졸	359(27.1)
		대졸	511(38.6)
		대학원 졸 이상	719(5.3)
	모	취업	569(42.9)
	취업여부	미취업	756(57.1)
	월 평균 가구소득 (만원)		445(366.3)

주1. 무응답이 포함된 일부 특성의 사례 수는 전체 사례 수에 미치지 못함.

주2. 모 취업에는 전일제 학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유아가 재원 중인 기관은 62.0%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으로 보고되어, 유치원 재원아의 약 2배가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를 포함한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7.26세, 어머니의 연령은 34.79세였으며, 응답자인 어머니의 대졸(38.6%), 고졸(29.0%), 전문대졸(27.1%)의 순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다수였으나, 학력별 분포는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 어머니 중 미취업인 경우가 57.1%로 반수를 상회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45만원으로 2012년 당시 가구별 평균 소득인 373만원(통계청, 2013)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도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 수집에 사용되었다. 이중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은 5차년도에 1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3회 반복 측정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8개 차원의 총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 중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5문항)’과 ‘공격행동(19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영역의 원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가 .88로 산출되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부정적 정서성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부모용 기질척도(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를 사용하였다.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의 차원,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 중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와 같이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에 해당하는 ‘정서성’ 차원의 5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제작된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정서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해당 차원의 명칭을 ‘부정적 정서성’으로 명명하였다. 단일차원인 이 도구의 내적합치도는 2차년도가 .76, 3차년도가 .72, 4차년도가 .72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온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Bornstein(1996)이 개발하고 이형민(2006)이 번안한 양육행동질문지(Parental Style Questionnaires, PSQ)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사회적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설정’의 3개 차원,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에 해당하는 ‘사회적 양육’ 차원의 9개 문항에 해당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단 아동패널의 대상 영아의 연령이 만 1세 전 후에 해당하는 2차년도에는 발달상 적절하지

않은 문항 3개가 제외되어, 2차년도에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은 총 6개가 사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이 도구의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등이 있으며, 점수가 높은 수록 자녀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차년도에 제외되었으나 3, 4차년도에 포함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를 들 수 있는데,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2차년도는 .83이었으며, 3차년도와 4차년도 각각 .85와 .83으로 큰 차이 없이 우수한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의 자료수집은 아동 대상의 검사와 부모 대상의 지필식 설문조사, 그리고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사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아동이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진 5차년도부터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가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인 2009년부터 5차년도인 2012년까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필식으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어머니 대상의 설문조사는 면접조사에 앞서 질문지가 배포되고, 면접조사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조복희 등, 2009).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에 대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 상관 등의 기술통계치와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AMOS 21.0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고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5점 척도의 보통에 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되어 부정적인 정서 표현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비교적 온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기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최대 48점까지 가능한 척도에 대해 평균이 7.79점으로 보고되어, 비교적 문제행동의 발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N = 1,325)

변인	1	2	3	4	5	6	7
1.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1)	1.00						
2.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2)	.48**	1.00					
3.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3)	.40**	.55**	1.00				
4.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1)	-.22**	-.16**	-.14**	1.00			
5.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2)	-.17**	-.19**	-.20**	.55**	1.00		
6.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3)	-.23**	-.19**	-.25**	.51**	.59**	1.00	
7.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Time 4)	.18**	.25**	.30**	-.11**	-.13**	-.16**	1.00
<i>M</i>	2.72	2.86	2.90	3.89	3.83	3.78	7.97
<i>SD</i>	0.62	0.60	0.61	0.48	0.52	0.49	5.96

** $p < .01$.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적으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녀가 기질 상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또한 온정적인 양육을 적게 하며, 유아기가 되었을 때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도 높았다. 특히 세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된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간 상관은 .40부터 .5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51부터 .59로, 어머니 양육행동의 자기상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궤적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세 시점동안 변화 궤적 추정에 앞서, 3년에 걸친 두 변인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은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이러한 변화 추이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는 무변화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는 선형변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무변화 모형의 경우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모두 1로 고정한 반면, 선형변화 모형의 경우 해당 계수를 0, 1, 2로 순차적으로 고정하여 모형적합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무변화 모형의 χ^2/df 값이 25.9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TLI는 .90 이상인 반면, CFI는 .90 미만이고 RMSEA 또한 .08을 상회하는 등 적합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반면 선형변

표 3. 무변 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분		χ^2	df	χ^2/df	TLI	CFI	RMSEA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무변화 모형	155.56	6	25.93***	.91	.82	.14
	선형변화 모형	20.23	3	6.74***	.98	.98	.07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무변화 모형	82.60	6	13.77***	.97	.93	.10
	선형변화 모형	19.78	3	6.59***	.99	.99	.07

*** $p < .001$.

화 모형의 경우, χ^2/df 값은 6.74로 개선되었으며, TLI = .98, CFI = .98, RMSEA = .07로 그 외 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적합도 지수 중 RMSEA가 .10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닌 반면에 선형변화 모형의 경우 χ^2/df 값의 개선뿐만 아니라 TLI, CFI 및 RMSEA 모두 우수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세 시점에 걸쳐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점차 증가하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선형변화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선형 모형은 실제 시점별 부정적 정서성과 온정적 양육행동 평균의 변화 추이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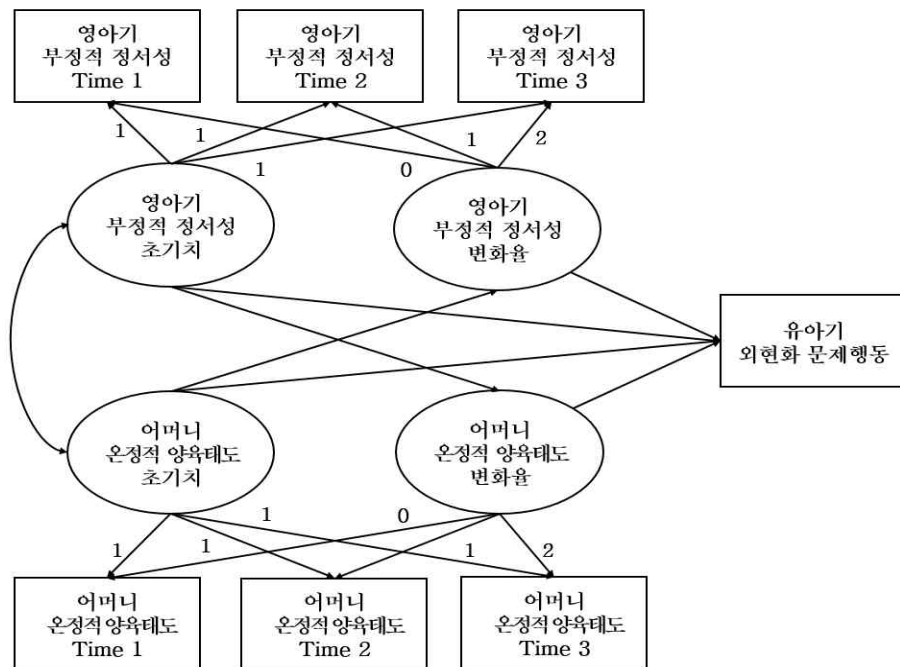


그림 2.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잠재성장 분석모형

일치하였다(표 2 참조). 이에 이들 변인이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을 채택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한편, 표 4에는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선형 변화 모델에 기초하여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시점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초기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부정적 정서성(.09)와 소폭씩 감소하는 온정적 양육행동(-.0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두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와 변화율간의 공변량은 -.03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 초기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영아기 동

안의 부정적 정서성은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기 수준과 변화정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가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df = 19.61(p < .001)$, TLI = .83, CFI = .84, RMSEA = .1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표 5 참조).

이에 모형의 수정지수를 검토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이 추가되는 경우 모형이 크게 개선되는 것

표 4.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값

구분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2.74***	.09***	.22***	.03***	-.03***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3.88***	-.05***	.14***	.08	-.00

*** $p < .001$.

표 5. 초기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	df	χ^2/df	TLI	CFI	RMSEA
초기 모형	404.65	19	19.61***	.83	.84	.12
수정 모형	80.11	15	5.34***	.96	.97	.06

*** $p < .001$.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기효과에 해당하는 변인 간의 측정오차는 공분산이 가정되는데(김계수, 200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측정은 동일한 척도에 대해 어머니가 자기평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공분산을 추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세 공분산이 추가된 수정모형을 재분석한 결과, 수

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df = 5.34(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TLI와 CFI는 모두 .90 이상, RMSEA는 .08 이하로 산출되어, 수정된 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정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수정된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	C.R.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치	-.67	-9.59***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 변화율	.46	2.04*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09	-.52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 초기치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	.26	2.34*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 초기치	→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54	-3.67***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	→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44	4.06***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변화율	→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28	1.29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1)	.71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2)	.71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3)	.69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치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1)	.51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치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2)	.51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초기치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3)	.51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1)	.00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2)	.20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	→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 (Time 3)	.39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변화율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1)	.14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변화율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2)	.07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변화율	→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3)	.00	-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1)	↔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2)	.40	10.43***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1)	↔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3)	.36	9.17***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2)	↔ ε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Time 3)	.44	11.64***

* $p < .05$. *** $p < .001$.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46$), 1세 때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점차 그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 또한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이는 자녀가 1세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 중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 만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4$).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의 경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beta = .44$),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율($\beta = .28$)

은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편, 수정 모형에서 추가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은 .36부터 .44까지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그림 3에는 주요 경로 간의 영향력을 요약하여 도식화하였다. 초기에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보이는 경우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변화하는 정도를 더 높이는 반면, 초기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정도가 더 커졌다.

한편, 1세 때 영아의 기질적인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기에 이르렀을 때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성이 영아기 동안 증가하는 정도가 클수록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1세 때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영아의 경우 이후 유아기가 되었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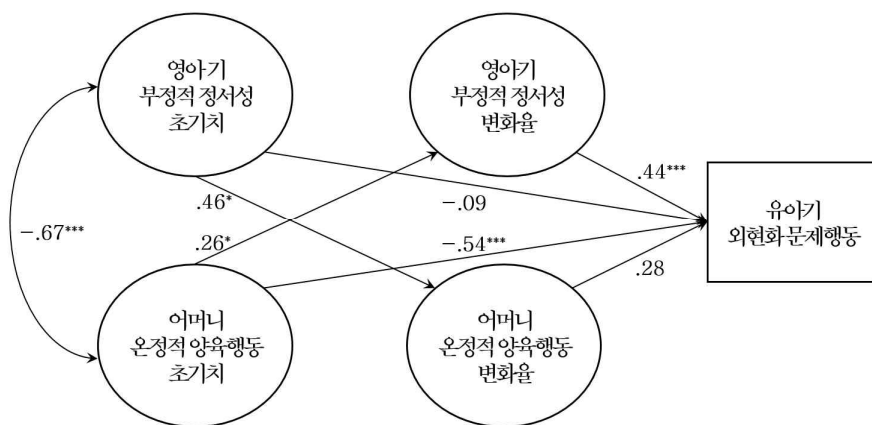


그림 3.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의 변화 정도는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그 동안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관계는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주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의 시간적 흐름의 변화와 종단적인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 동안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유아기에 이르렀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살펴본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가 수집된 시점인 돌을 전후로 영아기 동안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출생 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자율성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걸음마기부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짜증이나 떼쓰기 혹은 화를 표현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강지현, 오경자, 2011; 꺾

소현, 김순옥, 2006; 김수정, 정익중, 2015; 김연수, 꺾금주, 2016; 이찬숙, 김경윤, 2008).

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가 수집된 시점인 돌을 전후로 영아기 동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기주장이나 자율성이 발달하며 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행동보다는 통제적이거나 거부적 양육행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수정, 정익중, 2015; 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하지영, 박성연, 2005). 그러므로 자녀의 부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유지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 및 양육기술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김수정, 정익중, 2015;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박미진, 강지현, 2012; 최항준, 2017)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먼저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생애 초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기 동안 감소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생애 초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기 동안 감소하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횡단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한 반면(박옥임, 1995), 종단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Mills-Koonce et al., 2007)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어려운 기질을 타고난 자녀에게 초기에는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소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증가하는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정서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김수정, 정익중, 2015; 민현숙, 문영경, 2009; 최항준, 2017), 출산 직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따뜻하고 민감한 정도가 자녀의 발달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성이 대표적인 기질의 한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온정성을 단지 어머니 특성의 일방적인 효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적 특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적합도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출산 후 보이는 어머니의 온정성 수준 자체보다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온정성 간의 적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아기 동안 점차 증가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가속화된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어머니의 기본적으로 취하는 일정 수준의 온정성이 영아기 동안 자녀의 기질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달궤적의 변화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영아기 동안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이 클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보인 양육의 온정성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와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의 변화율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돌을 전후해서 생애 초반에 보이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은 그 수준보다는 점차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정서성이 조절력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수렴되는지가 중요한 것인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따뜻하게 자녀를 대하는 수준은 이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을 줄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한 결과는 환경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부정적 반응을 하는 민감성이 영아기에 증가하는 속도가 높을수록 유아기 부적응 행동을 많이 함을 밝힌 김수정과 박금주(200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영아기 동안의 기질상 변화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정서성 자체보다 이후 발달에 관련됨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성은 변화율보다는 초기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를 출생 당시인 1차년도 신생아 자료부터 4차년도까지의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자기회귀교차분석을 실시한 효과를 살펴본 김수정과 정익중(2015)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논의가 가능하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의 온정성의 자기회귀계수가 0세에서 1세의 경로가 .46인데 반해, 이후 자기회귀계수는 경우 1세에서 2세로의 경로가 .85, 2세에서 3세로의 경로가 .94로 나타나, 자녀가 둘 이후부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안정적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기의 경우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의 리듬이나 일차적 요구에 전적으로 반응적이나, 자녀가 1세 전후가 되면 어머니 양육행동 온정성도 일정 수준 패턴화가 되며, 자신만의 양육행동 수준이 안정화 된 1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양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기질적인 행동 특성이 변화하는 정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적절한 양육을 통해 영아가 점차 조절력 습득하는 경우 유아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집단생활을 할 때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정서성과 같은 부정적 기질 특성이 이시기 동안 더 심화되어 유아기를 맞는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횡단적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온정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줄어들음에 따라 영아기 자녀의 부정정서가 가중되는 경우 이후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증가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였으며, 이들 변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독립적으로 유아기의 외현화 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부정적 정서성에 관해 민감하게 개입해주고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요구되며, 어머니로 하여금 온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조기에 문제행동을 발견하여 교사나 전문가가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여 아동의 발달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아기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처음으로 조사된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의 외현화된 문제행동까지 기질 및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밝혀지고 있는 바(Buschgens et al. 2010; Chang et al., 2012), 학령기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학령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질, 양육행동 및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 간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최정은, 이소연, 2017; Erkin, Koss, Cummings, & Davies, 2014),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추고,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의 발현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더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더 높은 발달의 성취를 보일 수 있다는 민감성의 지표로도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Aron, Aron, & Jagiellowicz, 2012; Belsky, & Pluess, 2009). 그러므로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이고 풍성한 환경에서 부정적 정서성을 지니지 않은 아동에 비해 교사나 양육자로 하여금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발달의 성취를 밝혀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변화율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자기회귀교차분석을 통하여서 엄밀하게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제적이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인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의 주된 이유는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영아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온정성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2차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특성상 유관 변인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중재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초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아 초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련성이 영아기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

- 동의 발달경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지현, 오경자 (2010).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9(3), 875-894.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수정, 곽금주 (2007). 영아기 기질의 발달적 변화와 영아기 사회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183-199.
- 김수정, 정익중 (2015).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성/반응성 간의 양방향적 관계. *아동학회지*, 36(4), 1-16.
- 김수정, 정익중 (2016).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육아정책연구*, 10(2), 1-23.
-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 (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 김연수, 곽금주 (2016). 영아기 기질의 변화가 아동초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95-111.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 류관열 (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 민현숙, 문영경 (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3(1), 137-158.
- 박미진, 강지현 (2012). 유아기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송진숙 (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송하나, 설희정 (20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8), 154-154.
- 신나나, 박보경, 김소영, 도현심 (2015). 모-자녀간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순응/불순응 행동 간의 상호적 관계-단기 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36(5), 75-94.
- 신보영 (1999).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교육*,

- 8(2), 99-111.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 윤지원, 도현심 (2018).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2), 51-77.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수진, 오경자 (2012).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이 부주의와 과잉행동-충동성 문제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945-969.
- 이찬숙, 김경운 (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61-184.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산후우울,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6), 69-82.
- 이형민 (2006).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최윤경, 송신영, 김주연, 김영원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연희 (2001).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1), 33-48.
- 최항준 (2017). 유아의 기질,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및 영향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4, 23-52.
- 통계청. (2013). *가구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하지영, 박성연 (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한인숙, 양혜정 (2015). 부부갈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종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87-317.
- 한지현, 이진숙 (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5), 216-217.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Vermon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ron, E. N., Aron, A., & Jagiellowicz, J.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 Bornstein, M. H.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8.
- Bradley, R. H., & Corwyn, R. F. (2008).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first grade: A test of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2), 124-131.
- Buschgens, C. J. M., Van Aken, M. A. G., Swinkels, S. H. N., Ormel, J., Verhulst, F. C., & Buitelaar, J. K. (2010). Externalizing behaviors in preadolescents: familial risk to externalizing behaviors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7), 567-575.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ang, H., Shelleby, E. C., Cheong, J., & Shaw, D. S. (2012). Cumulative risk,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transition to school: A mediated moderation model. *Social Development*, 21(4), 780-800.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Etken, R. G., Koss, K. J., Cummings, E. M., & Davies, P. T. (2014). The differential impact of parental warmth on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triangulat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 Psychology*, 175(2), 118-133.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 Halverson, C. F., & Deal, J. E. (2001). Temperamental change, parenting, and the family context. In T. D. Wachs & G. A. Kohnstamm (Eds.), *Temperament in context* (pp. 61-7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ollenstein, T., Granic, I., Stoolmiller, M., & Snyder, J. (2004). Rigidity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6), 595-607.
- Lorber, M. F., Del Vecchio, T., & Slep, A. M. S. (2015).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fant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3), 663-680.
- Mackler, J. S., Kelleher, R. T.,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 O'Brien, M. (2015).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s 4 to 10.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 388-406.
- Mills-Koonce, W. R., Gariépy, J. L., Propper, C., Sutton, K., Calkins, S., Moore, G., & Cox, M. (2007). Infant and parent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maternal sensitivity: A caregiver-attachment systems approac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0(1), 114-126.
- Olson, S., Sameroff, A., Kerr, D., Lopez, N., & Wellman, H.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logy*, 17(1), 25-45.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105-176). New York: Wiley.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tifter, C., & Dollar, J. (201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E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546-607).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Wake, M., Nicholson, J. M., Hardy, P., & Smith, K. (2007). Preschooler obesity and parenting styles of mothers and fathers: Australian national population study. *Pediatrics*, 120(6), 1520-1527.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4.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Effects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Affective Parenting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Years: A Longitudinal Study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Choi, Jeonghee

Shin, Nary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trajectories of negative emotionality of infants aged 1-3 and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of their mother, and then to examine their bidirectional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longitudinal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in infancy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4 year olds at preschools were also examin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In order for this purpose, data from 1,325 children whose mothers participated in 2nd to 5th phas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It was revealed that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was likely to increase whereas the level of mother's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seemed to decrease from aged 1-3. Also, higher initial negative emotionality at age 1 predicted the rate of decreases i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whereas higher affective parenting of mothers tended to decrease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The initial level (intercept) of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e rate of change (slope) of negative emotion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ffective parent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Keywords: negative emotionality,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temperature, problem behaviors